

2022 5·18 문학상 신인상 소설 심사평

5·18 문학상 신인상 응모작을 읽는 시간은 심사위원에게도 각별할 수밖에 없다. 광주 혹은 1980년 5월이라는 공간과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모색하려는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기억이 지금의 우리에게 미친 광범위한 영향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모작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역사적 기억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공들여 그려냈다. 항쟁을 과거나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들의 눈앞으로 갖다 놓으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5·18 문학상 신인상의 의의도 되새길 수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주목한 작품은 「봉두산 너머」, 「다른 목소리로」, 「진해택 일꾼」, 「모지라지는 산」, 「우리는 우리조차 용서하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다섯 편이었다. 「봉두산 너머」는 아버지가 고통 속에 죽은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여긴 화자가 어머니를 통해 부모 사이에 생겨난 오해의 근원을 알게 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상처받은 부모 세대의 슬픔을 발견하는 과정이 생생한 입말로 그려졌지만 슬픔의 현재적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다른 목소리로」는 냉소적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던 과거의 인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루었는데, 인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남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 의해 손쉽게 봉합되어 버린 점이 아쉽다. 「진해택 일꾼」은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과거의 목가적인 농촌 마을 풍경과 그 내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던 비인간적 소외가 대비를 이루며 독특한 정서가 형성되었으나 인물의 사연이 일종의 후일담처럼 취급되고 연민이 담긴 시선에 의해 날카로움이 탈색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여겨진다. 「모지라지는 산」은 차분하고 지적인 화자의 말투와 사건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 등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하기에는 꺼려지는 이웃이지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이웃의 아픈 속내를 짐작하려는 태도가 믿음직한데, 화자가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비약으로 느껴질 만큼 갑작스럽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우리는 우리조차 용서하지 못했으므로」는 가정에 무관심했던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 딸의 이야기다. 아버지에게 품었던 불신과 원망이 해소되는 과정

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었고 깨달음의 깊이가 남다른 작품이었다.

다섯 편의 작품은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장점도 분명했으나 「우리는 우리조차 용서하지 못했으므로」를 당선작으로 꼽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화자가 아버지의 삶을 좀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전해줬다면 긴장감이 생생했으리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용서의 의미를 섬세하게 포착한 것만으로도 이러한 단점을 같음하고 남음이 있으리라 여긴다. 모든 응모자에게 격려를 보내며 당선자에게는 아낌없는 축하를 드린다.

2022년 4월 21일

2022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심사위원

김경희, 손홍규